

다문화시대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양 취경[†] · 김경란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Expression of Hybrid Fashion and Make-up in Multiculturalism in Fashion

Chieu-Kyung Yang[†] and Gyung-Ran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5. 1. 20. 접수: 2005. 5. 14.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how hybrid fashion and make-up responses to multiculturalism condition and how expression of hybrid. Today, every culture has taken on the compromise form by means of the cultural difference, variety, and pluralis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advance. In accordance with this current of the times, this study observed the hybrid found in the multiculturalism of the 21th century. The expression of hybrid in multiculturalism of contemporary fashion and make up combination of difference. Second, the society development and a generalized knowledge of multiculturalism and hybrid and history of make up. Third, characteristic of fashion about multiculturalism and characteristic of fashion about hybrid classify a divide into five according to fashion trend. Oriental and western of hybrid, the past and the present of hybrid, high society and the lower classes of hybrid, the main current and non mainstreamers of hybrid,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hybrid. Fourth, characteristic of make up about multiculturalism and characteristic of make up about hybrid classify a divide into five according to fashion trend. Oriental and western of hybrid, the past and the present of hybrid, high society and the lower classes of hybrid, the main current and non mainstreamers of hybrid,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hybrid take measures too.

Key words: hybrid(혼성), multiculturalism(다문화주의), fashion(패션), make-up(메이크업).

1. 서론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전환은 단지 시간적 의미의 변화가 아닌 인간 행위의 모든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

다. 그 많은 변화 중에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21세기는 20세기에 비해 더욱더 글로벌화(Global)되어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단지 나라의 이름만으로 구분할 뿐, EU와 같은 체제가 되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IT의 진보에 의한 유비쿼터스(Ubiquitous)시기의¹⁾

이 논문은 200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E-mail : kyang@sungshin.ac.kr

1)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어원은 '신은 어디에나 있다'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지금은 IT 전문용어로 바뀌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세계를 하나의 권(圈)으로 만들었고, 나라간, 민족간 문화의 경계를 허물었다.

도래는 나라간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이 경계의 제거는 문화 현상에서 즉시 나타났는데, 주류 문화가 없이 모든 나라, 민족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게 되었고, 각 나라 및 민족의 고유문화가 아닌 이(異) 문화간의 교류와 결합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탄생되기도 했다. 곧 다문화시대(Multiculture)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과 메이크업에서의 하이브리드 현상에 대해 고찰하되, 사회 과학에서 문화 갈등 극복 이론²⁾으로 각광받고 있는 '다문화'라는 시대적 조건 하에서, 패션과 메이크업 트렌드에서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다문화 사회 안에서 하이브리드 특성을 나타내는 현대 디자이너들의 작품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고, 현대사회가 다문화주의 아래 하이브리드가 패션을 주도하는 중요한 문화적 현상임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즉 21세기 다문화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 과학, 생물, 공학, 철학에서 조형 예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하이브리드 현상이 21세기의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에 어떻게 나타나고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하이브리드 패션 분류의 이론적 근거를 20세기 말까지의 사조에 관한 선행 연구 중 다음의 글에서 도출하였다. 오승혜³⁾는 복식에 나타난 퓨전현상을 성의 퓨전, 시·공간의 퓨전, 동·서양의 퓨전으로 나누어 분석했고, 박연정⁴⁾은 이원론에 입각하여 복식을 형태, 소재, 양식으로 나누어, 고급과 저급, 상류와 하류 양식의 혼합으로 분류하였다. 양희영·양숙희⁵⁾는 절충주의 양식을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고전주의와 모더니즘,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로 분류하여 두 양식간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를 모색하는 것으로

고급예술, 고상한 취미, 고전주의 등의 기존 개념을 탈피하여 모든 영역간의 조화로운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나현신⁶⁾은 복식의 절충주의 양식을 조형성, 장식성, 기술성, 모호성으로 나누고, 분류된 4가지를 모두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양식과의 절충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송경자⁷⁾는 듀얼리즘적 복식특징을 성의 공존, 속옷과 겉옷의 공존, 이질감이 나는 소재 공존, 동서양 양식의 공존,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공존으로 나누어 그 표현양식을 분석했다. 박혜정⁸⁾은 현대 패션을 다문화주의와 연결시켜, 양성화경향, 제3세계와 결합, 테크노(미래)·사이버와의 결합, 복식에서의 하이브리드 결합으로 분리하고 하이브리드 복식을 하이패션과 스포츠의 하이브리드로 보고 스포츠와 하이브리드된 예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유미⁹⁾는 21세기 전후의 퓨전 현상을 남성과 여성의 조화,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미래의 조화,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의 조화로 나누어 패션 트렌드의 퓨전현상을 제시하였다. 최수아¹⁰⁾는 패션에 나타난 퓨전을 시·공간·상황의 퓨전, 사회 계층에 따른 퓨전, 성의 퓨전, 장르의 퓨전으로 나누어 패션에 나타난 예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박연정과 송경자는 짙 소재와 비짙 소재, 재질감에서 이질성을 띄는 직물로 나누어 분리하여 현대 패션을 소재의 혼합을 통하여 보았고, 최혜정은 분류 목록에 하이브리드를 첨가시켜 광범위한 절충적 패션을 제시했다.

위 연구의 공통적인 분류의 예는 시·공간을 동서양으로 분리한 것과 성의 퓨전과 상류와 하류층의 분류로 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각 필자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절충주의적, 퓨전적인 기본 개념 하에 차별화된 시각과 이론 하에서 전개되었음

2) Jr. A. M. Schlesinger,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lec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Whittle Book, 1991).

3) 오승혜, "20세기 후반 복식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퓨전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4) 박연정, "복식디자인의 이원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5) 양희영, 양숙희,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24권 4호 (2000), p. 538.

6) 나현신,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7) 송경자,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듀얼리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8) 최혜정,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9) 이유미,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퓨전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0) 최수아, "패션에 나타난 퓨전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02년 S/S-2005년 S/S년 까지로 설정하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다른 두 스타일이 결합되는 것을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오리엔탈, 크로스 오버, 퓨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는 다문화주의라는 전제가 변화하여 이전의 다른 스타일간의 결합보다 확대된 방식(2가지 이상의 단편화된 등질적 혹은 이질적으로 조합되는 현상)의 결합이기에 새로운 용어인 하이브리드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선행 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은 2002년부터의 변화된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 경향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는 2002-2005 Paris-Milano Collection, Gap Collection 등의 잡지와 동아 TV, 퍼스트 뷰(<http://www.firstview.com>), 삼성디자인넷 (<http://www.samsungdesign.net>), 이보그 (<http://www.vogue.co.kr>) 등의 인터넷의 자료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분류의 근거를 토대로,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는 21세기의 패션 현상을 하이브리드로 만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20세기와는 차별화된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난 경향을 패션 트렌드에 근거하여 하이브리드 현상 안에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상류와 하류, 주류와 비주류,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5가지 분류에서 대립되는 개념인 서양, 현재, 상류, 주류의 개념은 현재 패션 트렌드의 고전적인 기본 요소로 보고 그 특징을 명시하지 않고 전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 다문화주의와 하이브리드

1. 다문화의 개념

문화에는 전통적으로 고급문화라는 개념이 있었으며, 이러한 개념은 다음 세 단계로 발전되어온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문화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특별한 교육이 요구되므로 극소수

만이 그 특권을 누린다는 "단선적인 엘리트 문화(Unilinear elite culture)", "지배적인 남성의 대중 문화(Dominant masculine mass culture)" 그리고 고급과 저급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며 수많은 다양한 문화를 의미하는 "다선의 민중(하위)문화(Multilinear popular (Sub) culture)"로 나타내며¹¹⁾ 이와 같은 3단계의 문화 발전 현상 중에 다문화 현상은 다선적인 민중 문화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이 시대의 문화 정책에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문화란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형성된 문화를 말한다. 다문화시대를 이루게 된 것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철학적 배경에 의해서이며, 그 철학적 배경은 현대 사회를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의하여 형성되게 되었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국제 사회에서 캐나다, 호주에 의해서 주목을 받았다. 왜냐하면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원리가 되는 다문화주의는 청치 통합에 순기능을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는 다문화주의를 '상이성에 대한 권리'로까지 확대하여 다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¹²⁾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부각되게 된 것은 캐나다 정부가 각국으로부터 밀려드는 수십 종류의 문화를 단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기 보다는 각 민족고유의 문화를 인정하고 계승 발전시켜 캐나다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1971년 세계 최초로 'Multiculturalism(다문화주의)'을 캐나다의 국시로 정한다는 취지를 발표하고부터이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1990년대 초 미국에서 하나의 철학적 사조로 등장한다. 미국의 특징은 다양한 이민들로 구성된 다인종 국가라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랫동안 백인들의 나라였고, 백인 문화는 곧 미국의 지배 문화였다. 그러나 주변부 문화를 조명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탈식민주의의 확산에 힘입어 소수 인종들은 점차 자신들의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다문화주의'이라는 개념이 미국 사회에 등장한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였다.¹³⁾

11) Barnard Malcolm, *Art, Design, and Visual Culture: An Introduc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pp. 19-29.

12) B. R. Barber, "Global Multiculturalism and the American Experiment," *Ethnic and Policy Journal* Vol. 10 (1993), pp. 47-55.

13) 구건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가을호* (2003), pp. 29-30.

즉 다문화주의는 지배 문화와 피지배 문화,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의 서열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의 동등한 공존을 주장하는 사조이다. 다문화주의는 생활 양식, 사고 방식 등 서로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자는 것이다.

2. 하이브리드의 개념

하이브리드의 의미는 첫째,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종, 품종, 특성 등의 사이에서 탄생한 이형(異形)이라는 의미와 둘째, 두 개의 상이한 문화나 전통의 혼합에 의해 출현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한다.¹⁴⁾ 생물학적인 용어로 종간의, 속간의 혹은 근친간의 교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종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잡종보다는 폭넓은 적용 범위를 지닌다.¹⁵⁾

조형 예술적 측면에서 하이브리드를 정의하면, 혼성 모방이나 개작의 경향을 띠고 다른 여러 가지 양식을 흉내 내거나 모방하는 매너리즘이나 양식적인 왜곡 현상과 언어 혼란의 경향¹⁶⁾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양상은 1920년대의 다다나 초현실주의와 1960년대의 팝아트(Pop-Art)에서 볼 수 있다.

생물학적, 조형예술적 등에서 정립된 하이브리드 개념은 과거에도 나타난 것으로, 새로운 문화는 아니지만 이전의 하이브리드 경향이 해체, 파괴, 반항 등의 저항 문화로 나타났다면, 현재의 하이브리드는 창조 개념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문화 코드로 등장하였다. 곧 현대 사회에서 하이브리드의 출현 배경은 사회적, 정치·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영향을 받았다.

현재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의 현상과 관계가 있는 복식 사조들 중에 19세기 복식의 절충주의를 시작으로 20세기의 절충주의, 60년대에 시작되어 80년대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분파인 해체주의 등이 하이브리드 현상의 역사적인 배경이다. 절충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의 기본 특징들 중에 절충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단편화된 현상은 하이브리드 현상의

중요한 특징이고, 해체주의의 절대적인 진리나 중심이나 근원의 독선과 횡포를 거부하며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으로부터 탈피하는 것 또한 하이브리드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단편화된 시각으로 인지하여 복합, 혼합시켜 감중적인 개념으로 믹스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의 기본 개념이 되었다.

Ⅲ. 다문화시대 하이브리드 패션

하이브리드 현상은 19세기의 절충주의와 국제화의 규격화된 모더니즘을 거처며, 20세기 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해체주의에 이르는 시대적 사조를 이어 21세기의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21세기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패션 체계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전의 사조들은 하이브리드 패션의 여러 유형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으며, 하이브리드 작업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세기와는 차별화된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난 경향을 패션 트렌드에 근거하여 하이브리드 현상 안에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상류와 하류, 주류와 비주류,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패션

세계 전역의 고유한 민속 복식을 현대 패션에 절충하는 다원적인 태도는 국제성 속에 지역성과 전통성을 강조¹⁷⁾하고 있으며, 특히 서양 위주의 패션 쇼에서의 동양 문화의 차용은 현대 패션에서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동서양의 하이브리드는 패션의 강국으로 명성을 유지해온 유럽에서는 디자이너들 사이에 이미 있어 왔던 디자인 영감의 모티프였다.

20세기 초기 패션에서의 모더니즘을 표방하여 동양 정취를 의상에 접목시킨 뽀아레(Paul Poiret)를 통해 다시 패션화 되었다.¹⁸⁾ 또한 일본에 소재를 두고 있는 트렌드 컨설턴트이자 기고가인 니콜 펠(Nicole Fall)

14)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3rd edition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1988), p. 660.

15) 프랑수아 지롬, *생명의 논리 유전의 역사*, 이정우 역 (서울: 민음사, 1994), pp. 78-79.

16)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서울: 미진사, 1991), p. 269.

17) 김지연, 이경희,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1호 (2004), pp. 9-16.

18) B. B. Baines, *Fashion Revivals: form Elizabethan age to the Present Day* (London: B. T. Batsford, 1981), p. 172.

은 “동양은 문화와 전통이 견고하고 뿌리가 깊어 끊임 없이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원천”이라고 말한다.¹⁹⁾

20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오며 표상적으로 보이는 디자인 차용에서 동양의 정서와 철학까지 표현하려는 적극적인 동양미를 차용하는 현대 서양 디자이너들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하이브리드는 이 시대의 패션계의 커다란 화두가 되어 있다.

2002 F/W Collection에서의 Folklore Fashion이 몽골, 티벳, 라틴아메리카의 민족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에스닉한 무드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2003 S/S Collection에서는 치파오(중국), 기모노(일본), 한복(한국)의 절제된 라인과 화려하고 섬세한 자수를 응용한 오리엔탈리즘의 무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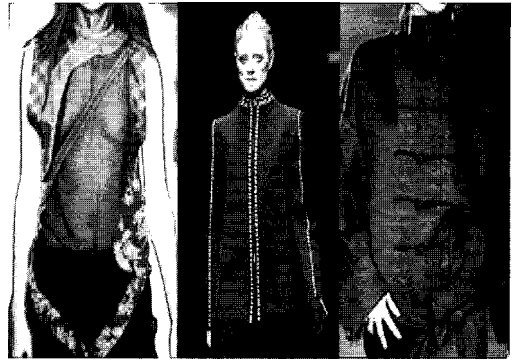
2004~2005 F/W Collection은 오리엔탈리즘 경향은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상식화 되었을 정도로 당연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경향으로 동서양의 하이브리드는 에스닉이라는 민속적인 경향과 함께 분류될 때도 있으나 현재 세계 무대의 패션 경향에서도 미국적인 에스닉 경향과 극동을 분리하여 유행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풍의 경우 중국의 복식은 주로 실크를 소재로 하여 그 위에 금색 실이나 여러 가지 문양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여성의 실루엣을 그대로 살린 형태의 중국 의상은 자수 장식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²⁰⁾

2002 F/W 컬렉션에서 비비안 탐(Vivienne Tam), 언가로(Ungaro), 지안 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é)의 컬렉션에서 중국 전통복 스타일의 의상이 일부 발표되었다. 2003 S/S Collection에서는 스타 브랜드와 영(Young) 감각의 세컨드 라인을 중심으로 중국 치파오풍의 의상이 대거 발표되었다(그림 1).

일본풍의 경우, 2002 F/W 컬렉션에서 발리(Bally), 구찌(Gucci), 나르시소(Narciso Rodriguez), 랑방(Lanvin), 노트(Dries Van Noten),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의상에서 일본 민속의상인 기모노풍이 표현되었다(그림 2).

한국풍의 경우 2003 S/S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는



Vivienne Tam Gianfranco F. Ungaro

<그림 1> 중국 전통복을 이용한 디자인. 2002 F/W.



Gucci Narciso Rodriguez Bally

<그림 2> 일본 전통복을 이용한 디자인. 2002 F/W.

한복의 보와 흉배를 연상시키는 문양을 곳곳에 세겨 넣었고, 제니(Genny)의 비즈 장식의 의상은 한국의 나전칠기를 연상케 하였고, 안토니오 마라스(Antonio Marras)는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긴 소매의 한복을 연상시키는 자켓과 한복 저고리의 디테일을 엮을 수 있는 자켓과 블라우스를 발표하였다(그림 3).

2.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패션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재조명되고 있는 레트로 현상은 패션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등장해온 테마²¹⁾로 2001년 트렌드부터 레트로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행코드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 한국무역협회 동향보고서 (2003년 7월 21일).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samsungdesign.net>

20) 이순홍 외 7인, *세계복식과 패션정보* (서울: 교문사, 2002), p. 114.

21) 김후란, 은영자, “패션에 나타난 퓨전 이미지에 관한 연구: 레트로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1권 2호 (2003), p. 295.



John Galiano Genny Antonio Marras
 <그림 3> 한국 전통복을 이용한 디자인.



Louis Vuitton Marc Jacobs Louis Vuitton
 <그림 4>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2003 S/S.

2004년 가을에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숙녀가 되어라”이고 2005년은 계속되는 50년대의 라인 패션이 레트로 룩에서 영향을 받은 엘레강스하고 클래식한 무드가 강세를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고 스타일’이라 불리는 패션의 레트로(retro)현상은 2000년대 이후 2005년까지의 패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스타일이었다.

50년대는 발렌시아가, 지방시 등 오피 꾸뛰르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두드러져 라인과 룩(Line & Look)의 시대로 불렸으며,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패션 아이콘이었다.²²⁾ 루비롱은 커다란 리본장식 스커트, 포니테일 헤어 스타일과 블루 아이 메이크업, 펄티 컬러의 모노그램 가방, 플라워 패턴 등을 활용한 레트로 패션을 선보였다.

60년대 가장 단순한 라인으로 이루어진 실용적인 의복 형태이면서도 우아함을 지니는 재키룩(Jackie Look)은²³⁾ 2001년 이후의 컬렉션에서도 재클린 케네디와 당시 대표 디자이너 꾸레쥬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 대거 선보였고, 60년대 패션 아이콘인 재키 룩은 2001년 이후에 마일드한 패브릭의 사용으로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기하학적인 실루엣의 미래적인 스타일로 제안되었고 7부나 8부 소매,

슬리브리스 원피스와 커다란 단추는 재클린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일드한 패브릭의 사용으로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표현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루비 롱과 마크자콥 컬렉션에 많이 등장했다(그림 4).

3.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패션

유행은 인류 문화와 더불어 상류층을 중심으로 하류층으로 수직 전파되어 왔으나, 귀족 대 평민이라는 계급 장벽이 서서히 붕괴되고,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신분 구조가 등장하면서 특정한 사회 신분을 상징하던 복식 대신 금전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된 복식이 사회 계층을 표시하게 되었다.²⁴⁾

보세와 명품, 정장과 운동화, 모던과 구식, 도시적인 것과 시골스러운 것, 천박한 것과 순수한 것 등의 패션에서 이미 정해진 상류와 하류의 개념 중에 2000년대 이후 가장 빈번히 나타난 스타일인 이지패션(스포츠, 캐주얼, 작업복)과 하이 패션과의 혼합을 스포츠와 하이 패션의 하이브리드, 스포츠와 캐주얼과 하이 패션의 하이브리드, 특수복과 작업복과 하이 패션과의 하이브리드 현상으로 구분된다.

스포츠는 오늘날 다방면에 걸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역으로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며 앞으로의 문화를 이끌 대표

22) Hamlyn, *Key moments in Fashion* (N.Y.: Reed Consumer Books Limited, 1988), pp. 86-95.

23) 이은영, “재키스타일에 관한 연구: 1961~1963년 퍼스트레이디 시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84.

24) 최영옥,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권 5호 (2003), pp. 453-464.

적 유행²⁵⁾으로 예측하고 있다. 스포츠와 하이 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디자이너와 스포츠 기업간의 제휴를 만드는 새로운 마케팅 개념을 만들었다. 또한 스포츠 기업과 럭셔리 패션과의 통합은 25~35세의 스포츠 스타일 선호층에서 새로운 스타일(Something New)로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콜레비레이션의 등장 및 확산의 배경은 소비자들의 욕구 변화에 따른 "패션의 라이프 스타일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유행'이라는 의미의 패션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스포츠와 캐주얼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Athletic과 Leisure의 합성어인 아틸레저(Atheleisure)는 액티브 스포츠웨어(Active Sportswear)와 캐주얼 스포츠 마켓(Casual Sportswear Market)의 강세로 21세기의 새로운 유행 트렌드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저웨어가 이미 스포츠웨어와 혼합되고 캐주얼과도 혼합되어 레저, 스포츠, 캐주얼의 개념이 패션계에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2003 봄 시즌 유럽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더욱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와 캐주얼(Sports & Casual) 스타일은 여성과 남성 부문 및 주니어, 아동복까지의 모든 카테고리를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0년대 풍의 루즈하고 캐주얼한 감각을 살린 스포츠웨어가 차기 여름 시즌의 중요 유행(Hot Trend)으로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강한 컬러 브로킹(Color Blocking)과 스트라이프와 그래픽(Stripe, Graphic)효과로 스포츠 감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그림 5).

특수복, 작업복과 하이 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작업복의 디테일을 도입한 실용적, 유니폼(Utility/Uniform) 컨셉은 고기능성과 보호적인 특성이 강화된 아웃도어 웨어(Outdoor Wear)나 유니폼 등 특수복뿐 아니라 패션트렌드 전반에 걸쳐 캐주얼 자켓의 디자인과 기능을 확대시키고 있다. 밀리터리 블루종(Military Blouson)과 지퍼장식, 밴딩(Banding), 테이프(Tape), 버클(Buckle) 장식과 같은 요소와 함께 50년대와 60년대의 유니폼에서 영향을 받은 공장의 근로자들의 기



〈그림 5〉 아디나스를 위한 요지야마모토 작품. 2003~2004 F/W.

능적인 의복에서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

4.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패션

패션에서의 주류는 이미 문명화된 서구를 지칭하고 비주류는 서구인들이 그들 문화 이외의 모든 문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서양에서의 이국취향은 그들의 문화가 팽창하면서 비 서양화된 지역과의 접촉과 함께 나타난다.²⁶⁾

패션에서의 주류는 이미 문명화된 서구를 지칭하고 비주류는 서구인들이 그들 문화 이외의 모든 문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다문화주의의 상징인 글로벌 컬처(Global Culture)의 영향으로 이제 비주류가 주류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동양에 대한 영감으로 재해석된 에스닉 테마는 인디아(Indian), 보헤미안(Bohemian), 집시(Gypsy), 동부 유럽과 중앙아메리카, 모로코(Morocco)와 같은 세계 각지의 이국적인 문화적 배경에 기인하며 에스닉 코스튬(Ethnic Costume)으로 표현되는 제3세계의 민속의상에 대한 매력은 지속적인 트렌드로 이어질 전망이다.²⁷⁾

20세기의 에스닉 경향이 원시적 성격을 띠는 아프

25) 이혜운, "American Classic Fashion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8.

26) 김수경, "이국취향의 요인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 복식문화연구 11권 3호 (2003), p. 61.

27)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samsungdesign.net>

리카나 문명에서 떨어진 오지의 이미지²⁸⁾를 가졌다면 21세기의 에스닉은 그 이전의 이미지에 긍정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알프스 소녀의 건강한 에스닉으로 표현되었다.

2000년대 이후의 에스닉은 그 이전의 양상과 다른 점이 있다. 첫째는 서양 기준의 이국적이 아닌 다양한 지역과 문화 유산을 보여주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풍으로 수평적인 이동을 시도하였다는 점, 그래서 스페인 풍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 극한의 기후를 지닌 티벳 고원, 몽골의 유목민, 고대 마야·잉카문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과 문화가 에스닉 룩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마크 제이콥스, 톰 포드, 마이클 코어스 등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정평이 난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컬렉션에 에스닉 감성을 디자인 보티브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오픈퍼퍼 취향의 디자이너들이 멤버로 있는 에스닉 룩 동호회에 문을 두드렸다는 점이다. 이러한 에스닉 패션의 고급화 시도로 세계 패션계는 이제 에스닉의 요소 없이는 국제적인 감각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기본 트렌드로 형성되어 있다.

2002년 이후 로베르토, 맥퀸, 디 앤 지의 패션에 많이 나타났다(그림 6).

5.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패션

미래와의 하이브리드로 첨단 산업이 이룬 과학의 가공할 위력이 주는 공포에서 미래의 편안하고 안락한 보장된 사회와의 하이브리드를 들 수 있다. 특히 패션에서는 섬유와 발전이 이루고 있는 결과가 패션 산업의 활로를 결정할 만큼의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미래의 패션으로 대표되는 스마트웨어(Smart Wear)²⁹⁾는 웹빙과 관련되어 패션과 과학의 이중적인 분야의 하이브리드로 그 발전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스마트 웨어란 의류 고



로베르토 카발리. A. McQueen. D&G.
2004/2005 F/W. 2003 S/S. 2002 F/W.
<그림 6>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유의 감성적 속성은 유지하면서 미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디지털 기능들이 부과된 고부가가치의 신개념의 류이다. 종래의 PC 부품들을 신체에 분산 부착하는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와는 확실히 다른 개념으로, 착용자의 신체 상태 및 외부 환경을 감지하는 기능이나 IT 기능을 단순 부착(adapted)을 넘어서 작품내의 한 요소로 편입(integrated)시킴으로써, 고도의 생활 편의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³⁰⁾

최근 개발되고 있는 신소재의 경향을 살펴보면 쾌적성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화 되어지는 기능성의 개념은 이전에 개발되었던 소재들이 갖고 있던 소극적 기능에서 신체 기능을 조절하며 여기에 더해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여 신체를 치유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의상이 새로운 신기술과의 하이브리드는 기능성과 활동성, 인체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 등과 함께 패션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 패션의 한 영역으로 형성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패션 현상을 <표 1>에 정리하였다.

28) 송명진,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26.

29) 스마트 웨어(Smart Wear)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극소 나노단위(nanoscale)의 생산기술, 친환경 소재(ET)라는 4대 영역에 신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의류를 뜻한다. 고기능성 섬유 소재의 의복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여러 가지 센서나 초소형 통신기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한 MP3 등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스마트 웨어는 이러한 기기들을 옷속에 내장시켜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착용 가능한 컴퓨터 (Wearable Computer), 상호작용이 가능한 직물제품 (Interactive Fabric)에 까지 이르고 있다.

30)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abc.net.au/science/news/stories/s131388.html>

〈표 1〉 하이브리드 패션 현상

분류	양상	패션 유형	21세기 패션쇼 이미지	특징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중국풍	중국의 17-20세기의 청시대의 고유 복장	용, 나비, 연꽃, 한자 등의 화려한 중국 문양 컬러 모양, 상의 드린, 치마 양쪽 단의 슬릿
		일본풍	기모노의 실루엣과 문양 원단	기모노 특유의 문양(벚꽃, 열매, 기하학적 무늬) 오버형태의 허리벨트 사용 오버사이즈 실루엣 일본 전통문양, 자수, 프린트, 염색
		한국풍	고구려 벽화의 긴 소매 한복	고구려벽화의 의복에서 문양과 형태, 색동 등을 차용, 네크라인, 슬리브스 탐, 문양, 북주머니 가방 등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50년대 패션	라인 패션, 다양한 실루엣의 시대 알파벳 라인이 21세기 패션에 접목	가는 허리라인과 완만한 어깨라인과 모래시계 실루엣 페플럼 라인이 높아짐. 물방울 무늬와 리본장식.
		60년대 패션	라인과 룩의 시대가 끝나고 핏라인의 다양한 변화	재키룩의 미래적 재현과 A라인 미니스커트, 셔링, 프릴, 레이어링, 페티코트, 그래픽 아트 패턴과 7부 8부의 소매길이가 21세기 패션으로 새롭게 부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스포츠와 하이패션	스포츠 기업과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이 활발	유명 디자이너의 로고가 아웃웨어에 노출되게 하여 패션성을 부가. 반대로 유명 스포츠 로고를 하이패션 무대에 노출. 고급 트렌드의 소재를 스포츠웨어에 접목.
		캐주얼과 하이패션	캐주얼과 하이패션과 경계가 불분명. 웰빙의 영향으로 포멀 웨어에도 활동성 부여.	비티지 붐의 안티 엘레강스 캐주얼의 대두. 캐주얼과 정장으로 공용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등장.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작업복과 하이패션	유니폼 컨셉으로 보호적 특성이 강화된 아웃도어로 발전. 특수복, 작업복, 유니폼 등의 디테일이 하이패션에 적용됨.	작업복의 디테일을 도입한 실용적인 유니폼 컨셉, 고기능성과 보호적인 특성이 강화된 아웃도어 웨어. 지퍼 장식, 밴딩, 태입, 버클 장식
		러시아풍 에스닉	러시아의 풍부한 역사적 예술적 새로운 디자인의 모티브로 작용됨.	보피트리빙 사용, 러시아풍 문양과 보석 사용, 타이트 부츠, 모자와 목도리의 다양한 사용.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모로코풍 에스닉	토속적인 로맨틱 감성으로 표출	가벼운 느낌의 벨벳과 구슬 악세사리 쉬폰 팬츠로 나타나고 있다.
		알프스풍 에스닉	알프스 소녀의 이미지	A 라인 스커트와 앞치마가 붙은 스커트 로맨틱 브라우스, 니트 셰터와 티를리안 모자.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스마트 웨어	정보기술, 생명공학, 극소 나노 단위의 생산기술, 친환경 소재라는 4대 영역의 신기술이 결합한 미래형 의류.	디지털 셰터, e-슈트, 아이들을 위한 위치추적기가 내장된 의복, 건강과 관련된 웰빙 의상 등.

IV. 다문화시대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하이브리드 메이크업도 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

과 같은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20세기와는 차별화되어,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난 경향을 패션 트렌드에 근거하여 하이브리드 현상 안에서 동양과 서양, 과거와



〈그림 7〉 존 갈리아노
2002 F/W.



〈그림 8〉 크리스찬 디올
2003 S/S.



〈그림 9〉 크리스찬 디올.
2003 S/S.



〈그림 10〉 크리스찬 디올.
2003 F/W.

현재, 상류와 하류, 주류와 비주류,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서양에서 동양의 일반 대중 화장이나 치장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기가 힘들었던 시대에 동서양의 교역이 시작되는 역사에서 가장 먼저 동양의 여러 취향을 볼 수 있던 도구는 아마도 공연 문화였을 것이다. 공연 문화는 민중 오락³¹⁾으로서 동양의 공연 문화인 경극과 가부키의 전통적 화장은 패션 컬렉션에서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하게 차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동양의 공연 예술 중에서 중국의 경극과 일본의 가부키 화장이 컬렉션 무대에서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과 일본의 전통극에 사용된 무대 화장인 경극과 가부키는 20세기 말에는 존갈리아노에 의해 97-98년 컬렉션에서 홍콩의 중국 반환을 계기로 경극 화장만을 차용했으나, 21세기의 컬렉션에서는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21세기 패션 컬렉션에서의 전통적 메이크업 경향은 크리스찬 디올과 존 갈리아노의 무대에서 주목되기 시작했다. 2004-2005F/W 크리스찬 디올의 파리 컬렉션은 가부키의 화이트 베이스와 경극 화장의 컬러베이스가 이용되었다. 2002 S/S로 크리스찬 디올의 화이트 메이크업으로, 다른 컬러나 기교가 없는 단순한 화이트 화장이나, 헤어 스타일과 의상

에서 일본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다.

2002-2005년의 기간에 표현된 경극과 가부키 요소의 메이크업은, 디자이너로는 크리스찬 디올과 존 갈리아노가 가장 많이 표현하였고 그 밖의 디자이너들도 사용된 예가 보였으나 크리스찬 디올이나 존 갈리아노와 같이 계속된 시즌에서 보여 한 시즌에만 단편적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그림 7-11).

2.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레트로 개념은 하나의 창조를 이루는 과정이다. 이는 과거에 유행되어 대중들에게 익숙한 선행 양식 즉, 과거 양식을 모방하되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의 변화를 이루는 페리티 과정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표현성을 갖는 현재의 유행 스타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³²⁾

과거와 현대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현상으로 21세기에 진입하여 패션 트렌드에 가장 강하게 표현되었던 것은 50-60년대의 메이크업의 재현인 레트로(retro)현상과 궁정시대를 회상하는 궁정 메이크업이다. 디자이너로는 세린느, 마이클 코어스, 캐롤리나 헤레나(그림 16, 17),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빅터엔 몰(그림 18), 안나 수이, 샤넬, 크리스찬 디올, 알버타 페레티 등이다.

2002은 다소 무거운 느낌의 메이크업으로 시작되어 50-60년대의 다양한 특징을 수용하는 메이크업으

31) 김학현, *가부키* (서울: 열하당, 1997), p. 12.

32) 이인자, 양진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예술논집* 24권(2001), pp. 131-132.

로 수용되었고 2004-2005년에는 그 시대보다 더 밝고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수용되고 있다. 눈의 윤곽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가는 붓이 사용되었던 50-60년대의 화장³³⁾의 특징인 섬세하게 그라데이션하는 눈화장을 21세기에든 같은 방법과 컬러로 사용한다. 50-60년대의 레트로 메이크업의 가장 큰 특징인 섬세한 눈 화장으로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눈으로 표현되었다.

레트로 메이크업이 가까운 과거인 20세기와와의 결합이라면 궁정적 메이크업은 오랜 역사속에서 만들어진 패션 아이콘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나타난 궁정적 메이크업은 과거의 풍요했던 시절의 궁정을 회상하며 낭만적인 요소와 사치스러움이 메이크업에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레트로 메이크업도 나타났다. 궁정적 메이크업의 악세사리는 궁정의 고급스러움과 격조를 느낄 수 있는 보석이 등장한다. 2004년, 샤넬과 랑방, 놀재 앤 가바나 쇼의 부르주아 레이디들은 다이아몬드 핀을 머리에 장식한 채 캣워크를 행진했다.

레트로 메이크업, 궁정메이크업, 요부적 메이크업 등에서 레드 립스틱은 21세기의 메이크업 트렌드에서 여성성이 강조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궁정적 메이크업에서는 발렌티노와 랑방 쇼에서도 모습으로 나타났다(그림 12-15). 이때 피부는 마치 도자기처럼 새하얀 파운데이션과 파우더가 사용되었고, 헤어 스타일은 변형된 업 스타일이나 복고적인 웨이브로 요부적인 분위기가 표현되기도 하였다. 궁정적 메이크업

은 오랜 역사의 과거 코드와 현재의 유행 경향과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21세기에 표현된 궁정적 메이크업의 특징은 내추럴 경향을 기본으로 고급스러움이 전



〈그림 13〉 발렌티노.
2003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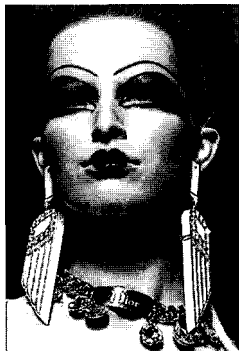
〈그림 14〉 랑방.
2004 S/S.



〈그림 15〉 발렌티노.
2004 F/W.



〈그림 16〉 캐롤리나 헤레나.
2003 F/W.



〈그림 11〉 크리스찬 디올.
2004-5 F/W.



〈그림 12〉 발렌티노.
2002 F/W.



〈그림 17〉 헤레나.
2003 S/S.



〈그림 18〉 Viktor & Rolf.
2004 S/S.

33) Beatrice Fontanel, *치장의 역사*, 김보현 역(서울: 김영사, 2004), p. 35.

개된다.

3.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는 뱀프와 케포츠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뱀프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의 역사에서 짙은 화장이 유행하였던 시절 사교계의 대표적인 메이크업이었다. 14~15세기에는 과도한 흰 피부에 대한 열망으로 유해한 납 성분의 분을 사용하여 얼굴과 인체에 해를 입히기도 했고 사망하는 극단적인 예도 있었다.³⁴⁾ 하지만 근대 유럽에서는 프랑스대 혁명 이후 짙은 화장이 사라지고, 낭만적인 문학 작품의 영향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 창백한 얼굴이 유행하였다. 짙은 화장은 여배우나 고급 창녀의 표시로 간주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부터 20세기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화장은 하얀 피부 표현에 있었지만 과도한 뱀프 화장의 특징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³⁵⁾

2002년도의 뱀프 메이크업은 베르사체, 고티에의 꾸뜨르에서 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다양한 문화와 소재를 섭렵한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은 요부적인 요소의 메이크업이 많이 보여진다. 2004에는 로베르토 카발리, 부디카, 장 프랑코 페레, 로베르토 카발리, 장 폴 고티에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2005 S/S에서는 크리스찬 디올과 베르수스에 의해 표현되는 뱀프 메이크업은 특히 눈 화장에 강조점과 변형을 가져온다(그림 19-22).



〈그림 19〉 베르사체. 2002 F/W.



〈그림 20〉 크리스찬 디올. 2003 S/S.



〈그림 21〉 크리스찬 디올. 2003 S/S.



〈그림 22〉 장 프랑코 페레. 2004 S/S.

2004년 가을 메이크업의 강세는 '뱀프(Vamp)룩', 즉 '요부(妖婦)'화장이다. 뱀프 화장의 특징은 일반적인 화장에 비해 짙은 화장을 일컫는 것으로 티끌한 점 없이 완벽하게 연출한 피부, 길고 깊은 스모키 아이, 짙고 붉은 입술 등으로 표현되나 현대에 와서는 붉은 입술과 빛나고 윤기나는 누드 입술의 기법도 함께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뱀프 메이크업은 당당한 카리스마까지 갖춘 파워 뱀프 룩으로 21세기에 오리엔탈리즘의 유행과 북고 무드의 영향으로 훨씬 강력하고 성숙한 여성미를 강조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세기에 패션에서 주목 받는 단어는 캐주얼과 스포츠의 합성어인 캐포츠일 것이다. 케포츠는 실용적이고 개성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젊은층의 취향을 잘 만족시켜 주는 트렌드로 일상복에서 스포츠 웨어로 또한 하이패션까지 그 영역의 확대가 무한한 21세기의 트렌드이다. 2002~2003년의 캐포츠 메이크업의 표현방법은 클래식한 학생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컬러의 사용은 한정되게 사용하였지만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였다(그림 23). 2004~2005년의 메이크업은 내추럴함과 스포츠웨어의 강세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기능적인 메이크업은 물론이고 깨끗한 피부톤 위에 얇은 컬러이지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그림 24, 25).

4.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20세기가 시작하면서 동양의 복식이 서양에 소개

34) 春山行夫, *おいしいゆわの文化史* (東京: 平凡社, 1976), pp. 63-64.

35) 泰早穂子, *スクリーンモードと女優たち* (東京: 文化出版局, 1974), pp. 24-25.



〈그림 23〉 미유미유.
2002 F/W.



〈그림 24〉 까사랫.
2003 S/S.

되면서 상류층의 동양 취향이 비 문명적인 것이 아닌, 고급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에스닉 메이크업 또한 패션의 영향으로 메이크업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다.

비 서양문화 사회에서의 얼굴과 체형 장식은 서양 문명 사회의 일시적인 화상과 비교해서, 보다 드라마틱하고 지속성이 강하다. 이러한 비 서양문화의 화장이 서양 사회에서는 영구적인 상처로, 그 밖의 장식은 비 문명으로 보여졌다.³⁶⁾ 이러한 비문명적 행위가 서양에 의해 신비한 동양의 무조건적인 모방으로 발전되어, 여러 민족적 컬러들을 다양하게 혼합시킨 민족융합적인 새로운 코드를 창조해냈다.

2002의 에스닉 메이크업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크리스찬 디올, 존 갈리아노, 고티에 등을 들 수 있다.

기법은 다양한 민족적 정서를 현대와 혹은 다른 이 문화와 혼합, 소재에서 민족적인 패턴과 미래적인 소재와의 혼합 등으로 나타났으며 메이크업 기법에서는 원시적인 페인팅이나 과도한 장식으로 표현되었다(그림 26-28). 2003년의 에스닉 메이크업의 특징은 문신을 다시 사용하였고 다른 컬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그림 29). 2004-2005년 과거 역사의 흔적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메이크업 기법에서도 페인팅과 풀라주 등을 사용하였다(그림 30, 31).

새로운 패션의 보티프를 찾는 디자이너와 고객들의 열정이 만든 패션의 관심이 21세기에 들어서 에스닉 브론즈로 표현되었다. 메이크업 트렌드의 모든 영역에 브론즈, 브라운, 골드 컬러가 기본 베이스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27〉 존 갈리아노.
2002 F/W.



〈그림 28〉 크리스찬 디올.
2002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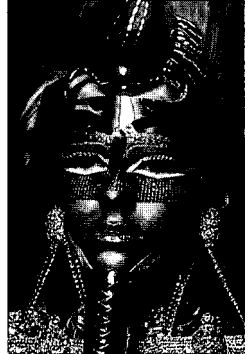
〈그림 25〉 세린느.
2005 S/S.



〈그림 26〉 고티에.
2002 S/S.



〈그림 29〉 장 폴 고티에.
2004 S/S.



〈그림 30〉 크리스찬 디올.
2004 S/S.

36) 早川律子, 化粧の心理學 (東京: 週刊粧業, 1979), p. 27.

21세기로 들어서면서 골드의 이미지는 에스닉 메이크업과 결합하면서 고급함에서 저급함까지로 확대되었고 컬러가 가지고 있는 컬러 고유 이미지인 고급스러움도 하이브리드 현상에서는 전혀 다른 저급한 이미지로 변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5.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21세기의 미래 메이크업은 패션과 동일하게 밝은 컬러로 예측되고 표현되어졌다. 메이크업에서는 미래적 경향으로 켈빙과 함께 미래이미지를 담은 투명 메이크업이 하이패션에 새로운 21세기 현상으로 나타났다. 21세기에 나타난 미래 메이크업은 알렉산더 맥퀸, 구찌, 질 샌너, 준야 와타나베(그림 34), 켈디, 빅터 & 롤프(그림 36) 등의 디자이너를 들 수 있다.

2002~2003년에는 미래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시대성을 가미하여 과거 역사적인 의상에 미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메이크업의 특징은 내추럴을 기본으로 글로쉬함과 가볍게 번찍이는 미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32, 33). 2004년은 미래 익스트림 메이크업의 경향으로, 헤어나 기법 등에서 극단적인 표현 양상을 보인다. 2004 F/W~2005 S/S은 기존의 미래이미지에 판타스틱한 기법과 상상력을 메이크업과 헤어 장식에 사용한다. 2004 F/W에서 구찌, 오스카 드라 렌타, 켈빈 클라인의 컬렉션에서는 베이지 컬러의 메이크업이 디자이너의 경향에 따라 밝은 베이지에서 핑크베이지에서 브라운 베이지로 표현되었다.

익스트림 메이크업은 미래에 대한 극단적인 메이크업으로 2004 F/W 의 알렉산더 맥퀸의 무대를 들 수



〈그림 33〉 구찌. 2003 S/S.



〈그림 34〉 준야 와타나베. 2004 S/S.



〈그림 35〉 알렉산더 맥퀸. 2004 F/W.



〈그림 36〉 빅터&롤프. 2005 S/S.

있다. 뮤지컬이나 판타지 부비어나 등장할 익스트림 뷰티는 우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변종을 낳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베이비 페이스의 에일리언들이다(그림 35, 38). 극단의 뷰티를 표현한 크레이지 페이스와 달리 21세기의 판타지 랜드 속의 모델들은 동화 속 요정처럼 순수하고 평화로운 얼굴들이다. 공통적으로 화이트, 페일 핑크 등의 컬러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헤어 스타일은 예외 없이 천사의 머릿결처럼 사랑스러운 쉐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그림 37).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의 양상을 <표 2>에 정리하였다.

V.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현상 비교 분석



〈그림 31〉 존 갈리아노. 2005 S/S.



〈그림 32〉 알렉산더 맥퀸. 2002 F/W.



〈그림 37〉 존갈리아노. 2004 S/S. 〈그림 38〉 알렉산더 맥퀸. 2005 S/S.

다문화시대를 중심으로 패션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유형과 양상은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20세기 말까지는 한 문화권 내지 문화 계층에 중심을 두고 다른 영역을 비교하는 이분법, 즉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서 서구와 비서구로 나누는 이분법, 고급 예술의 시각에서 고급과 팝-아트로 나누는 이분법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21세기 들어서는 여러 문화권과 문화 계층의 패션 경향이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타났다.

21세기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현상은 몇몇 가지의 현상의 조합이 아니라, 동질적이면서 이질적인 것들과의 잡종과 같은 현상으로, 기존의 분류법으

〈표 2〉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양상

분류 양상	메이크업 유형	21세기 패션쇼 메이크업	특징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전통적 메이크업	일본의 가부키와 중국 경극의 화장	가부키나 경극의 무대화장은 일반 화장과 달리 과장되어 표현. 21세기 컬렉션에서는 경극과 가부키의 혼합.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레트로 메이크업 · 궁정 메이크업	마릴린 먼로, 그레이스 켈리, 오드리 헵번, 재클린 등의 메이크업 스타일이 재 조명. 궁정과 귀족 스타일이 절제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으로 헤어 스타일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 황금색 컬러의 유행이 진행되면서 고대 화장의 골드메탈이 유행 트렌드로 부각.	20세기 패션코드가 21세기의 코드와 혼합되어 재구성. 대표적인 유명 스타의 포인트 스타일이 현대적 감각으로 혼합. 고급스러운 장신구와 함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귀족의 품위를 느낄 수 있는 보라와 황금색이 이용. 현대적인 이미지. 메탈의 반짝이는 효과를 강조하면서 눈, 코, 입의 부분화장도 충실하게 공을 들여 표현.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뺨프 메이크업 · 캐포즈 메이크업	하류층의 화장을 명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하이패션에서 차용하여 메이크업 트렌드로 자리잡음. 완벽한 레트로로 시대성을 강조하지 않고 내추럴에 절제된 고전미. 내추럴 특수 메이크업.	완벽한 피부 표현과 눈 화장이 빈진 듯 하면서도 크게 과장되지 않게 스모키 아이로 표현.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지만 공들여 눈, 코, 입의 화장을 하고 클래식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표현. 캐포즈 패션에 어울리는 스포티함과 우아함이 함께 느껴지도록 가벼운 피부표현이지만 기능적인 자외선 차단은 완벽하게 처리.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에스닉 메이크업	기존의 민족적인 에스닉이 아닌 고급화된 이미지의 에스닉. 동양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브론즈 컬러 에스닉.	기본 페이스는 갈색이나 브론즈로 처리하고 헤어는 전혀 신경쓰지 않은듯한 이미지로 부분화장으로 강조(눈썹, 주근깨, 아이라인). 에스닉 메이크업에 글로시한 첨가.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미래 메이크업	웰빙의 영향으로 내추럴 투명 메이크업.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극단적인 표현. 환상적인 이미지 일상에서의 탈출을 경험하도록 하는 컬렉션 메이크업.	미래 이미지로 투명한 피부와 희색 글로시. 과장된 헤어, 단순화되고 극단적인 화장이 복고 이미지와 혼합. 메탈적이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환타스틱한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강조 다른 오브제의 사용으로 미래 이미지와 극단적인 이미지 표현.

로 구분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현상, 곧 다문화주의와 하이브리드의 이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유형이 채택하는 양상은 절충적인 혼합을 기본으로 과거에 있어왔던 스타일이나 장르와의 혼합과 병치로 나타났다. 패션에서의 하이브리드로 인한 트렌드가 메이크업 트렌드와의 완전한 일치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패션과 메이크업이 인간의 외형미를 표현하는 전체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도,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된 트렌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메이크업이 코디에서 패션의 부속, 보조적인 역할로 항상 패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현상을 통해 불협화음과 같을 수 있는 장르와 장르, 트렌드와 트렌드의 혼합과 병치가 이 시대의 새로운 패션 해석의 코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이라는 커다란 장르가 이미 많은 분야와 섞는 일을 시작한 이후에, 21세기의 다문화주의에서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어울리지 않으며 조합할 수 없는 분야까지도 어울림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패션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양상을 <표 3>에 정리하였다.

VI. 결 론

20세기까지의 주류 문화는 서구 문화였다. 비록 여러 민족, 문화권의 문화가 공존했지만, 주류와 비주류가 존재했고, 모든 문화가 주류 문화인 서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의 내려졌다. 21세기에 들어서자 이러한 시각에 변화가 일어났다. 문화를 보는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다양한 민족, 문화권, 계층, 형태의 문화가 동등하게 공존하게 되었다. 주류라는 관점이 사라진 것이다. 변두리 문화가 주류 문화를 변방에 놓고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생겼고, 모든 문화가 주류 문화로서 위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다문화주의라는 사조로 자리매김하였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패션에서 다문화주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20세기말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헤체주의를 지나 한 가지 사조로는 경향을 설명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 현상으로 설명되어진다. 곧 하이브리드 현상에 의한 혼

<표 3> 패션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양상

양상 분류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현대패션의 하이브리드양상	절충적인 양상을 기본으로 과거에 있어왔던 스타일이나 장르와의 혼합과 병치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패션 유형	전통복에서의 차용(중국, 일본, 한국의 전통복과의 결합)	가까운 과거와의 결합(50, 60년대와의 결합)	이지웨어(캐주얼, 군복, 작업복, 특수복)와 하이패션의 결합	(러시아, 알프스, 모로코) 이질적인 나라와의 결합	프로그램의 지환과 혼합으로 새로운 의복의 개념 확립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유형	전통적 메이크업(경극, 가부키 메이크업)	레트로 메이크업	밴프 메이크업 캐포츠 메이크업	에스닉 메이크업	미래 메이크업
디자이너	미유 미유, 프라다, 로베르토 카발리, 앤드로 엔지, 발렌티노, 에트로	디키니, 마크 자콥, 루비통, 지춘희, 안나수이, 샤넬, 빌브라스, 발렌티노	미유미유, 루비통, 구찌, 보메가 베네타, 장폴 고티에, 무디카, 스캇 앤드류	파코라반, 발망, 크리스토퍼, 디엔지, 알렉산더 맥퀸, 안토니오 마라스, 카스텔바자, 존 갈리아노	질센더, 웬디, 발렌시아가, 존갈리아노, 크리스찬디올, 아디다스, 나이키, 마모트, 비보메트릭, 보웬
패션과 메이크업의 연계성	독립된 장르로 나타남	50-60년대의 패션 아이콘이 동일하게 나타남	장르에 따라 혼합되고 병치됨	단편화된 정보가 이질적 결합으로 나타남	과학적 미래이미지와 혼합

합과 병치는 21세기 하이패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고찰과 생물학적 용어로 시작하여 이 시대 정치, 문화, 예술, 과학과 공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과 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전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유형은 동양과 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등 5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20세기 말까지는 한 문화권 내지 문화계층에 중심을 두고 다른 영역을 비교하는 이분법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21세기 들어서 여러 문화권과 문화계층의 패션경향이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둘째, 21세기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현상은 몇몇 가지의 현상의 조합이 아니라, 동질적이면서 이질적인 것들과의 잡종과 같은 현상으로, 기존의 분류법으로 구분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현상, 곧 다문화주의와 하이브리드의 이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곧 하이브리드 유형이 채택하는 양상은 절충적인 혼합을 기본으로 과거에 있어왔던 스타일이나 장르와의 혼합과 병치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에서의 하이브리드로 인한 트렌드가 메이크업 트렌드와의 완전한 일치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패션과 메이크업이 인간의 외형미를 표현하는 전체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도,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된 트렌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메이크업이 코드에서 패션의 부속, 보조적인 역할로 항상 패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개 양상을 전제로,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적 하이브리드의 다섯 유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고전 스타일의 응용되어 패션에서는 전통복에서의 차용 즉 중국, 일본, 한국의 전통복과의 결합으로 나타났으며, 메이크업에서는 전통적 메이크업 즉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 등과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는, 지난 시대의 패션 코드와 메이크업 코드가 같은 트렌드로 만난다. 즉 21세기에 복고 트렌드로 50-60년대에 유행한 패션과 메이크업의 기법과 아이콘이 현재의 패션 코드와 결합하여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레트로 패션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는 상호 텍스트성을 통한 타 분야와의 결합으로, 융합하고 저항하며 하이브리드되었다. 패션에서는 이지 웨어 즉 캐주얼, 군복, 작업복, 특수복 등과 하이 패션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에서는 뱀프 메이크업과 캐프츠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는 구상적 요소와 형태적 요소들의 이질적 결합으로, 패션과 메이크업이 다른 코드와 만나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드는 이질적 결합으로 나타난다. 패션에서는 이질적인 문화권의 결합으로 나타났으며, 메이크업에서는 에스닉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는, 패션에서는 과학적 기술과의 혼합으로 새로운 의복의 개념이 성립되고 있고, 메이크업에서는 미래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현상을 통해 불협화음과 같을 수 있는 장르와 장르, 트렌드와 트렌드의 혼합과 병치가 이 시대의 새로운 패션 해석의 코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이라는 커다란 장르가 이미 많은 분야와 혼합된 이후에, 21세기의 다문화주의에서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어울리지 않으며 조합할 수 없는 분야까지도 어울림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구건서 (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가을호.
- 금기숙 외 (2002). *현대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 김수경 (2003). “이국취향의 요인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 *복식문화연구* 11권 3호.
- 김지연, 이경희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1호.
- 김춘득 (2002). *동서양 미용문화사*. 서울: 현문사.
- 김후란, 은영자 (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이미지

- 에 관한 연구: 레트로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1권 2호.
- 김희숙, 이연희, 이화진 (2002). *뷰티 & 스페셜 베이 크업*. 서울: 신정출판사.
- 나현신 (2001).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연정 (1997). “복식디자인의 이론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자 (1999).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듀얼리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명진 (1991).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희영, 양숙희 (2000).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24권 4호.
- 염승호 (1995). *하이브리드*. 서울: 홍익출판사.
- 오승혜 (2000). “20세기 후반 복식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퓨전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미 (2001).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퓨전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2001). “재키스타일에 관한 연구: 1961-1963년 퍼스트레이디 시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 양진희 (2001).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경향.”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예술논집* 24권.
- 이혜운 (2003). “American Classic Fashion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2002).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최수아 (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옥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권 5호.
- 최혜정 (1999).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성욱 (1998). *잡종, 새로운 문화읽기*. 서울: 창작과 비평사.
- 홍성욱 (2003). *하이브리드 세상 읽기*. 서울: 안그라 픽스.
- 뷰티 & 헬스 연구회 (2001). *미 100년사*. 서울: 현문사.
- 라사라 (1991). *20세기 보드의 역사*. 서울: 라사라.
- 한국철학회 편 (2003). *다원주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서울: 철학과 현실사.
- 秦早穂子 (1974). *スクリーンモードと女優たち*. 東京: 文化出版局.
- 春山行夫 (1976). *おしよわの文化史*. 東京: 平凡社.
- 日本記號學會 (1996). *多文化主義の記號論*. 東京: 東海大學出版會.
- 木村雄之助 (1979). *化粧*. 東京: 日本文化興隆會.
- Craik, Jennifer (2002). *패션의 얼굴*. 정인희, 함인자, 정수진, 김경원 역. 서울: 푸른솔.
- Fontanel, Beatrice (2004). *치장의 역사*. 김보현 역. 서울: 김영사.
- Horn, Marilyn J. and Gurel, Lois M. (1988).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서울: 까치.
- Lipovetsky, G. (1987). *패션의 제국*. 이득재 역. 서울: 문예출판사.
- Martiniello, Marco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역. 서울: 한울.
- Paquet, Dominique (1999). *화장술의 역사*. 지현 역. 서울: 시공사.
- Mendes, Valerie and Amy De La Haye (2003). *20세기 패션*. 김정은 역. 서울: 시공사.
- 青木英夫 (2004). *서양화장 문화사*. 유태순, 조기여, 이화순 역. 서울: 동서교역.
- 春山行夫 (2004). *화장의 역사*. 임희선 역. 서울: 사람과 책.
- Aucoin, Kevyn (1996). *The Art of Makeup*. New York: Callaway Editions.
- Aucoin, Kevyn (1997). *Making Face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Aucoin, Kevyn (2000). *Face Forwar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Bamford, Laura (1998). *Key Moments in Fashion*. London: Hamlyn.
- Bertin, J. (1986). *Le Grand Livre de L'histoire du Monde*. Paris: France Loisirs.
- Buxbaum, G.(ed.)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 Prestel.

- Cosgrave, Bronwyn (2000). *Vogue Beauty*. London: Carlton.
- Craik, J. (1994). *The Face of Fashion*. New York: Routledge.
- David, Bond (1992). *History of Fashion*. New York: Universe Publish.
- Filor, Anna May (1992). *Multiculturalism*. New York: New York State Council of Educational Associations.
- Harvey (1996). *Hybrids of Modernity : Anthropology, the Nation State and the Universal Exhibition*. New York: Routledge.
- Lehnert, Gertrud (2000). *A History of Fashion in the 20th Century*. Cologne: Konemann.
- Mendes, V. and De La Haye, A. (1999). *20th Century Fashion*. London : Thames & Hudson.
- Nars, François (2001). *Makeup Your Mind*. Nars Cosmetics, Inc.
- Quant, Mary (1998). *Classic Make-Up & Beauty*. London: Dorling Kindersley.
- Seeling, Charlotte (2000).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Cologne.